

노인의 개인적 특성이 자살 충동과 관계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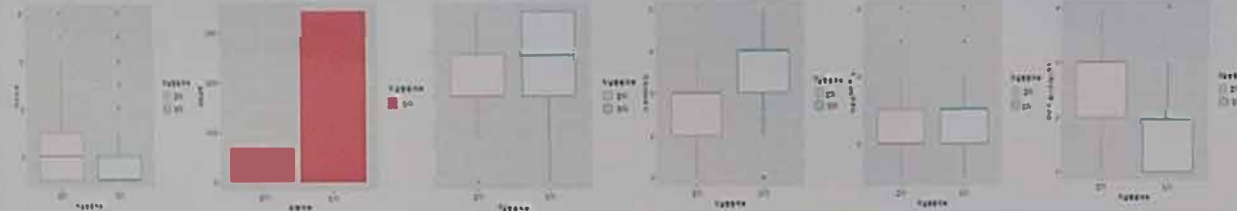
과목명 | 데이터분석기초 지도교수 | 서주영 이름 | 행정학과 공혜미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중 4명중 1명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응답을 보였고, 실제 2016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의 75.6%는 노인 자살을 사회문제로 인식했다.
- 한국은 2017년 이후로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측되고 있기에, 노인의 문제는 사회전반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 통계청이 공개한 '2017년 사회조사' 데이터 중 노인의 개인적 특성(인구특징, 건강요인, 환경요인, 스트레스요인)을 추출하여 과연 어떤 개인적 특성이 자살충동여부와 관련이 있는지 교차분석하며, 특히 자살충동 "있다"에 응답에 영향을 준 조건들을 연관분석으로 파악해 봄으로, 자살 충동의 원인 식별과 노인자살충동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조사대상: 65세 이상 노인 8,193명

데이터 탐색 및 분석 결과

- 가구소득
- 유병여부
- 본인건강평가
- 주관적만족감
- 가족관계만족도
- 일상생활스트레스



연관분석결과	Sig.	Confidence	Lift	교차분석결과	자살충동여부
{유병여부=있다, 일상생활스트레스=느끼는편} → {자살충동=있다}	0.0234	0.0877	1.748	일반적특징	성별 p-value = 0.970287
{일상생활스트레스=느끼는편} → {자살충동=있다}	0.0281	0.0748	1.492	나이	p-value = 0.456566
{가구소득=100만원미만, 유병여부=있다} → {자살충동=있다}	0.0266	0.0728	1.451	가구소득	p-value = 2.263e-05
				건강요인	유병여부 p-value = 3.649e-11
					본인건강평가 p-value = 4.193e-45
				환경요인	주관적만족감 p-value = 1.722e-118
					가족관계만족감 p-value = 2.937e-45
				스트레스요인	일상생활스트레스 p-value = 2.109e-108

프로젝트 성과 및 기대효과

- 예상 밖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성별과 나이는 자살충동여부와 관련이 없었다.
- 반면 성별에 따른 유병여부는 유의미한 관계를 가졌고, 유병이 있다는 분포는 여성이 더 많았다. 또한 성별에 따른 일상생활스트레스정도 는 유의미한 관계를 가졌는데 스트레스는 여성이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충동여부는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자살충동 비율이 가장 높았다.
- 건강 요인에 따른 자살충동여부는 유병 여부, 본인건강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자살충동 있다는 경우 유병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약 5배나 많았다. 본인건강평가에서는 자살충동이 있을 경우 '나쁜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자살충동여부가 없음에 응답한 사람들은 건강평가가 대부분 좋음,보통에 해당했다.
- 환경요인에서는 주관적만족감과 가족관계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삶에 대한 주관적만족감과 가족관계만족도가 낮을 수록 노인 자살충동비율이 높았다.
- 스트레스 요인에서는 일상생활스트레스정도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는 노인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노인의 자살충동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다음으로 자살충동여부 '있다'에 영향을 준 응답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연관 분석을 한 결과 일상생활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 유병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 가구소득이 100만원미만인 유병이 있는 사람이 자살충동 '있다'에 연관성있는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즉 노인이 소득이 낮거나, 유병이 있거나, 본인건강상태가 나쁘거나, 주관적만족감과 가족관계만족도가 낮거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자살 충동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노인자살충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제적 측면, 건강 측면, 가정환경측면, 스트레스 측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살률을 줄이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 노인의 일자리 창출, 노인의 건강진사업, 삶의만족도 향상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사업, 건강한 가족관계형성등의 정책을 마련 할 수 있다.

청소년 주관적 안녕감과 신체. 문화. 봉사 활동과의 관계

과목명 | 데이터분석기초 지도교수 | 서주영 이름 | 행정학과 김민정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한국 청소년은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수준이다.
 - ✓ 주관적 안녕감에는 행복감, 근심 걱정의 정도, 우울감 정도, 삶의 만족도,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이 중,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OECD국가 중 최하위라고 한다.
 - ✓ 낮은 주관적 안녕감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현재 청소년 우울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 그렇기에 청소년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주관적 안녕감과 신체, 문화, 봉사 활동이 관련 있는지 교차분석, 연관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 분석 결과를 통해 청소년 주관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통계청이 공개한 '2017년 청소년 종합 실태 조사(청소년용)' 데이터 중 '주관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행복감, 우울감, 근심정도, 일에 대한 자부심)'과 '신체, 문화, 봉사, 국제교류, 진로, 건강, 개척활동 및 신체활동시간'의 설문항목 이용
- 조사 대상: 9~24세 청소년 7,676명

데이터 탐색 및 분석 결과

- 신체 활동 여부 응답자 분포
- 문화 활동 여부 응답자 분포
- 봉사 활동 여부 응답자 분포
- 신체활동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 신체 활동 여부에 따른 행복감
- 신체 활동 여부에 따른 근심정도
- 문화 활동 여부에 따른 행복감
- 문화 활동 여부에 따른 근심정도
- 봉사 활동 여부에 따른 우울정도



$\chi^2 = 54.29103$ d.f. = 4 p = 4.573635e-11
 $\chi^2 = 53.06192$ d.f. = 4 p = 8.271273e-11
 $\chi^2 = 58.92541$ d.f. = 4 p = 4.878421e-12
 $\chi^2 = 64.43259$ d.f. = 4 p = 3.388385e-13
 $\chi^2 = 10.70447$ d.f. = 4 p = 0.03009403

신체 활동 시간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상관도



국제교류, 진로, 건강, 개척 활동, 우울정도 간의 연관분석

변수	연관성	p-value	유의성
134	신체활동시간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연관성	0.000000	***
135	문화활동시간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연관성	0.000000	***
136	봉사활동시간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연관성	0.000000	***
137	신체활동시간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연관성	0.000000	***
138	문화활동시간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연관성	0.000000	***
139	봉사활동시간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연관성	0.000000	***
140	국제교류, 진로, 건강, 개척 활동, 우울정도 간의 연관성	0.000000	***

프로젝트 성과 및 기대효과

- 교차분석을 통해,
 - ✓ 청소년 신체/문화/봉사 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 어느정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 신체활동시간과 주관적 안녕감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 연관분석을 통해서도 기타 활동(국제교류, 건강, 개척, 진로 활동)은 우울 정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 신체활동, 문화활동, 봉사활동이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추후 청소년 주관적 안녕감 증진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외국인 관람객이 한국에 재방문하는 요인 분석

과목명 | 데이터분석기초 지도교수 | 서주영 이름 | 행정학과 김수진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경제는 한국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을 크게 받고있으며, 관광산업은 이제 국내 총생산(GDP)과 고용의 1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 외래 관람객들에 대해 데이터를 모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여러 항목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 외래관광객들이 재방문하는 요인을 모아 더욱 많은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개선하면 좋을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통계청의 공개 데이터인 '2017년 외국인 관광객 실태조사' 중 '한국재방문여부, 방한목적, 방문장소, 여행동기, 여행정보인수경로, 전반적만족도, 출입국절차만족도' 등과 같은 항목을 추출하여 분석한다.
- 조사대상: 2017년 방문한 만 15세 이상으로 체류 기간 1일 이상, 1년 이하인 외국인 7,972명

데이터 탐색 및 분석 결과



연관분석결과	Support	Confidence	Lift	교차분석결과	재방문여부
[가장많은활동=쇼핑, 재방문횟수=4회이상] → [한국재방문=재방문]	0.107	1	2.276	관광안내서비스만족도	p-value = 0.5788461
[가장많은활동=공연관람, 재방문횟수=4회이상] → [한국재방문=재방문]	0.117	1	2.276	출입국절차만족도	p-value = 0.0230567
				숙박만족도	p-value = 0.2754933
				대중교통만족도	p-value = 0.1740089
				가장많은활동	p-value = 1.081e-95

프로젝트 성과 및 기대효과

- 한국에서의 활동들과 한국 재방문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 중, 기대빈도와 관찰빈도의 차이가 커서 서로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항목은 '활동-쇼핑, 유적지 방문, 자연경관 감상, 공연관람'이다.
- 여러 만족도의 시각화 결과는 '처음'과 '재방문' 집단 사이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대중교통, 숙박, 관광안내서비스' 만족도는 '재방문'과 관련이 없지만 '출입국절차만족도'는 '재방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단순통계(평균)가 허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연관분석 결과, 4회이상 재방문하고 한국에서 한 활동 중 쇼핑, 공연관람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람객들은 각각 10.7%, 11.7%의 비율로 무조건 재방문한다고 분석되었다.
- 요즘, 한국의 관광산업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외국인관광객이 한국에 재방문하는 주요 요인인 '쇼핑, 공연관람, 출입국절차만족도'를 중심으로 관광 서비스를 개선한다면, 관람객을 더욱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단순 시각화 결과, 외국인 관람객들이 식도락 관광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요인이 재방문에 많은 영향을 주고있지 않는 것을 보아, 식도락 관광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환경이 여성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

과목명 | 데이터분석기초

지도교수 | 서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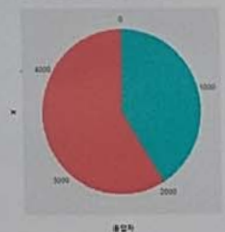
이름 | 행정학과 한진주

연구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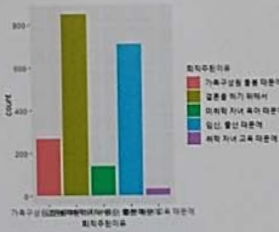
- 여성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책임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현상인 경력단절 문제는 심각하다.
- 경력단절은 여성 개인의 손실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전체 고용률이 낮아지는 데 영향을 주고 여성이라는 중요한 인적자원의 손실을 초래한다.
-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은 결혼, 육아 등의 가정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통해, 여성의 가정환경을 나타내는 요소들과 경력단절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경력단절에 큰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 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 통계청이 공개한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여성의 가정환경을 나타내는 요소로 '혼인여부, 혼인 상태, 가구의 경제적수준만족도, 월평균수입, 월평균지출, 배우자 야간휴일 근무빈번도, 배우자 집안일참여도, 자녀유무, 자녀실제돌봄, 퇴직이유' 등을 추출하여 경력단절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 조사대상: 만 25 ~ 54세 여성 4,185명

데이터 탐색 및 분석 결과

경력단절여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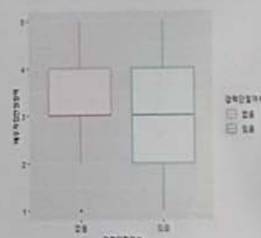
퇴직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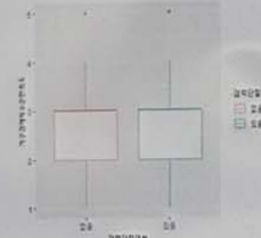
'자녀가 있는 경우' 와 '자녀가 없는 경우' 경력단절여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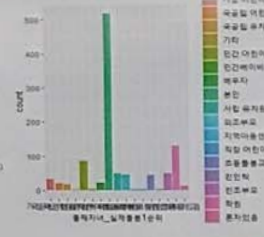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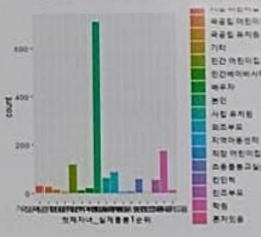
배우자 별 경력단절여부 분포



가구 경제적 수준 만족도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실제 돌봄 1순위



교차분석결과	배우자 집안일 참여도	자녀 여부
경력단절여부	p-value = 0.01680867	p-value = 2.617e-136

연관분석결과	Support	Confidence	Lift
{첫째자녀_실제돌봄=본인, 둘째자녀_실제돌봄=본인} → {경력단절=있다}	0.206	0.915	1.554
{자녀여부=아니오} → {경력단절=없다}	0.052	0.780	1.894

프로젝트 성과 및 기대효과

- 프로젝트 성과**
 - ✓ 경력단절 여성은 전체 중 41.158%(1990명)이고 경력단절은 주로 결혼, 임신, 출산 등의 생애 사건에 의해 발생한다.
 - ✓ 경력단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요소는 배우자 집안일 참여(배우자), 자녀 여부, 자녀 돌봄 방법(자녀)이다.
 - ✓ 가구 경제적 만족도(경제적 사정)는 경력단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
- 기대 효과**
 - ✓ 개인적인 측면에서, 가정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가 집안일에 더 많이 참여하게 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 본인이 자녀를 돌보는 것이 경력단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에서 상의를 통해 다른 돌봄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 ✓ 사회적 측면에서,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우자가 집안일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족친화 기업 문화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정책 또한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자녀를 돌보는 역할이 여성 본인에게만 과중 되지 않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